

특별·광역시 기초의회 없애 토착비리 차단

■ 새누리당 '지방자치 대수술 개선안'

광역단체장·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도입도

민주 "정당공천 폐지 회피 꼼수" 반발

새누리당이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논란을 지방자치제도 개선안으로 돌릴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이 들고 나온 개선안의 골자는 ▲특별·광역시 구(區)의회 사실상 폐지 ▲광역시·도지사의 3선 연임 금지 ▲교육감과 광역단체장 러닝메이트제 도입 ▲국민 참여 경선제 도입 추진 등이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그동안 제대로 된 역할이 없었던 비판을 받아

온 특별·광역시의 기초의회를 아예 없애는 방안이다. 지난 대선에서 여야는 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의 정당 공천을 폐지하는 공약을 나란히 내 걸었지만 기초의회에 대해서만 아예 단계적으로 없애버리는 방안을 들고 나왔다.

기초의회는 의원들의 자질 문제와 수없이 되풀이된 토착 비리 사건, 기초단체장과 유착 등으로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또 광역의회와 업무가

겹치는 부분이 많다는 지적도 있었다. 여권 관계자는 "광역의원들이 기초단체장을 충분히 감시할 수 있는 만큼 기초의원이 굳이 필요 없다"면서 "기초의회 의사당을 따로 두고 기초의원을 선출하고 운영하는데, 막대한 혈세를 쏟아붓는 것을 대부분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여권은 급격한 개혁에 대한 기록 권총의 반발을 고려, 우선 7개 특별·광역시와 구의회부터 폐지해보고 나서 대상을 확대한다는 복안이다. 대신 광역의원의 수를 늘려 지방정부 견제의 질과 효율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광역시·도지사의 연임 한도를 3선에서 재선까지로 줄이는 방안도 지방 행정의 정치 과잉을 막고 행정 효

율성을 구현한다는 측면에서 주목된다. 현재 시·도지사는 연임만 가능하다면 최장 12년까지 해당 시·도의 수장으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대통령 임기의 2배를 재임하고 2년을 더 할 수 있어 '지방의 대통령'이란 말을 들어왔다.

현재 정당 공천 없이 별도로 선출하는 교육감을 광역단체장과 '러닝메이트(동반 출마)'로 묶어 뺄도록 하는 방안은 사실 교육계 비리 근절과 깊은 관련이 있다. 현재 교육감은 정당 공천을 하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여권과 야권 후보로 구별돼온 게 사실이다.

선거 포스터도 일부러 자신을 지원하는 정당과 같은 색상과 모양으로 제작하는 등 이른바 '눈 가리고 아

웅'의 행태를 보여왔다. 하지만, 이 같은 새누리당의 쇄신안이 실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야당이 당장 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 요구를 피하기 위한 꼼수라며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새누리당이 기초의회 폐지라는 여러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들고 나와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논의에 물타기를 하려는 전술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박기춘 사무총장 역시 "지방선거 전까지 기초선거 정당공천을 폐지하기도(실현하면) 어려운데 그보다 더 큰 지방행정 개선안을 들고 나온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한국 사회보장비 13%... OECD '꼴찌'

獨·佛·日의 3분의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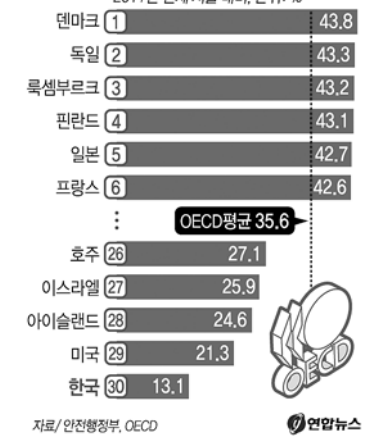
우리 정부의 전체 지출 가운데 사회보장비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30개국 중 꼴찌를 차지한 반면 경제활동비 비중의 비중은 1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안전행정부와 OECD의 '한눈에 보는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기준으로 한국 정부의 사회보장 지출은 전체 지출의 13.1%에 불과해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적었다. 비교 대상 국가 중에서 덴마크는 전체 지출 중 43.8%를 사회보장에 써 비중이 가장 컸다. 독일(43.3%), 룩셈부르크(43.2%), 핀란드(43.1%), 일본(42.7), 프랑스(42.6) 등도 사회보장 지출 비중이 한국의 3배를 넘었다.

이와는 달리 한국의 경제활동비 지출 비중은 20.1%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컸다. 이어 아일랜드(16.4%), 헝가리(14.4%) 순으로 비중이 컸고 영국(5.3%), 이스라엘(5.8%), 덴마크(6.1%) 등은 최하위 수준이었다.

한국은 교육에 15.8%, 보건에 15.2%, 공공서비스에 15.2%를 각각 지출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

OECD국가 사회보장비 비중 순위



노무현센터 건립

예산 40억 반영

연내 부지매입 가능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노무현센터'가 세워진다. 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국회는 올해 예산에 노무현센터 건립을 위해 '집적대통령 기념사업 지원금' 40억원을 편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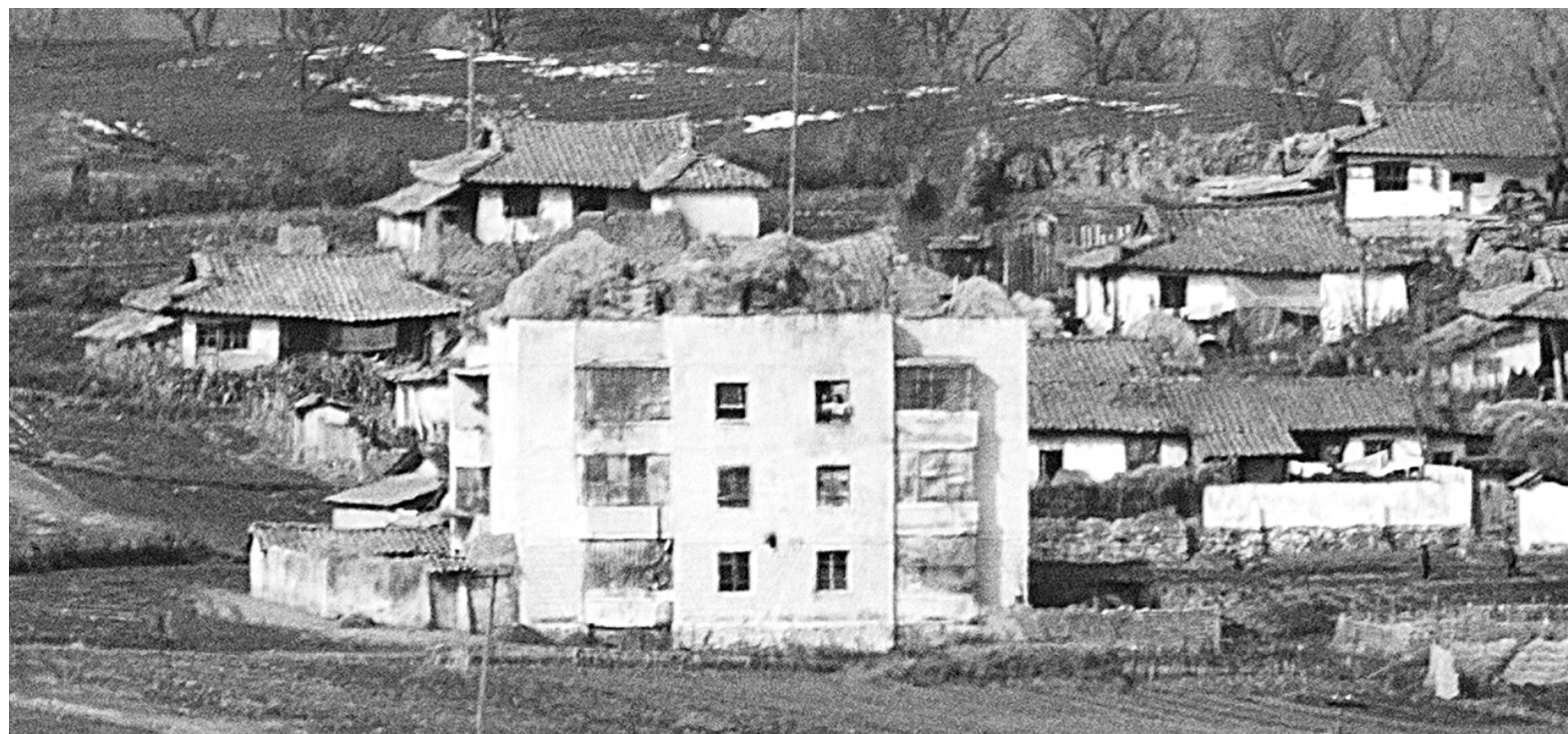
이 예산은 정부가 작년 10월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는 배정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된 것이다.

예초 노무현재단이 요청한 80억원 가운데 절반이 반영됐다.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최재천 의원이 반영을 강력히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서관·전시공간·강의실·연구실 등이 들어서는 노무현센터 사업의 총 예산은 550억원이다. 노무현재단은 정부 지원으로 165억원, 모금 등으로 385억원을 각각 조달할 계획이다.

'집적 대통령 유무'에 의거해 지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7개년 사업으로 계획됐으나, 전임 '이명박 정부' 때인 2010~2011년 85억원이 지급된 후 2012년, 2013년 연이어 예산을 배정받지 못해 부지매입 등 초기 절차가 진행되지 못했다.

노무현재단 관계자는 "40억원을 확보했기에 이르면 연내 부지매입 등 사업 착수가 가능할 것"이라며 "장소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콘크리트 건물 위의 초가 지붕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생일(1월 8일)을 앞둔 5일 경기도 파주시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황해도 개풍군 일대 주택이 보이고 있다. 콘크리트 건물 위의 초가 지붕이 눈길을 끈다. /연합뉴스

“北 신년사 남북관계 개선 언급, 진정성 의심”

정부 공식입장 밝혀... “비핵화 노력 기울여야”

정부는 3일 '남북관계 개선'을 언급한 북한의 신년사에 대해 "남북관계 개선 분위기를 언급했으나 그 진정성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통일부 김의도 대변인이 발표한 '북한 신년사 관련 입장'을 통해 "북한은 작년도에 대해 정적을 버리고 화해와 단합, 통일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이후 핵실험,

군사적 위협, 개성공단 일방 중단, 비방·중상 등 남북관계를 저해하는 행위를 지속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번 입장은 북한이 지난 1일 신년사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을 언급하지 않을 만에 나온 공식 입장으로, 남북관계에 대한 지나친 낙관론 확산을 경계하는 한편 북한의 '의도'에 말리지 않겠다는 차원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북한은 신년사에서 '비방 중상을 끝내자'고 말하면서도 우리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사대매국 행위'로 매도하는 등 이율배반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아울러 우리에게 '중복 소동'을 벌이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으나 각종 매체와 지령을 통해서 중북 세력을 위해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부추긴 것은 북측 자신이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군사적 도발 위협,

약속 불이행으로 남북관계를 악화시킨 것은 바로 북한"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평화와 화해는 말만 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면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북한이 신뢰를 쌓기 위한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하며, 무엇보다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명백히 밝히는 바"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날 발표에 대해 "신년사 발표 이후 여러 해석과 전망이 있었는데,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차원에서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자 한다"면서 "신년사 발표 이후 그에 상응하는 북한의 태도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전남도 사회복지공무원 126명 채용

전남도는 사회복지공무원 126명을 신규 채용한다. 올해 사회복지공무원 신규 채용 규모는 총 126명으로 일반 108명, 저소득층 4명, 장애인 6명, 시간선택제 공무원 8명 등이다.

정부의 일선 자치단체 사회복지인력 확충계획에 따라 지난해(83명)보다 채용 규모가 43명 늘었다.

또 올해 처음 선발하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일반직공무원의 통상 근무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보다 짧게(1일 3시간 이상, 주 15~35시간) 근무하는 공무원이다.

응시자격은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자격 소지자로 2014년 1월 1일 이전부터 전남도에 거주하고 있거나 과거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하며 18세 이상(199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이던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오는 2월 3~7일 자치단체통합 인터넷원서 접수센터(<http://local.gosi.go.kr>)를 통해 인터넷으로만 접수하며 3월 22일 필기, 5월 15일 면접을 거쳐 5월 29일 최종 합격자가 발표된다. 문의 061-286-3441. /오광목기자 kroh@kwangju.co.kr

기초의원이 국비 예산 5억 확보 눈길

광산구 박삼용 의원

광주 광산구 기초의원이 지역 속 원사업을 목표로 해결해 화제가 되고 있다.

6일 광산구의회 박삼용 의원에 따르면 최근 광산구 송정동 주민들의 숙원 사업인 송정1동 명지아파트~라인아파트 도로공사 사업비 5억 50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해당 구간 도로는 인근 주민들이 지난 40여년전부터 꾸준히 도로개설을 요구해 왔으나 열악한 구 재정 등에 따라 그동안 일부 토지보상만 이뤄진 채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착공이 장기간 미뤄져 왔었던 곳이다.

하지만 박 의원이 수차례 국회 및

관련 부처를 방문해 해당 사업의 당위성을 적극 설득해 국비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과정에서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같은 당 소속인 박 의원의 목적을 높이 평가해 해당 예산 확보를 적극 추진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박 의원은 "또 다른 지역 숙원사업인 '송산유원지 교량건설사업'을 위한 수십억원대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승필기자 srchoi@kwangju.co.kr

나주 혁신도시 · 강변도시 남다른 부동산 투자법!

매물을 팔려는데? 매물을 사려는데?

고객 여러분의 고민을 솔로몬 부동산이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상업용지 / 근생용지 / 점포주택지 / 주차장용지

바로 지금이 기회!!

나주 혁신도시 전문 **나주 솔로몬 공인중개사**

H. 010-5587-3080 / 010-3505-8005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354-32(우정사업본부 후문 방향)

금당공인중개사

매매·교환·설계·시공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투자·감정가 이하

- 화순읍 대로면 149평 은행 2억 감정 3억6천 매도2억9천
- 임동 요한병원 부근 4차선변 상업거리 2140㎡(646) 건물 227평 공시지가 14억7천 매도12억2천
- 금매, 지하철 상층역 사거리 대로면 중주거 377㎡(111평)병원·사육·학원·자동차 정비시설 등 복합 7억6천
- 광주은행 본점 부근 상업지 694㎡(210평) 건물 158평 공시지가 11억6천
- 동명동 5층건물 대지318㎡(96)건평228평 상가와 주택 원룸 15개 투룸3개 보증금 1억2천에 월 500선 수익 9억6천
- 식당건물 금매 금남로3가 부근 소방도로 점 대지 149평 건물 438평 은행 6억4천 전세 8천에 월 440선 7억7천
- 그린벨트 담 담양군 창평면 고속도로 입구 2425㎡(734)공시지가에 매도 3860만원 동물사육·아직장들 복합
- 나주시 봉황면 소재지 대지 119평 주택 30평 5천만원
- 모텔, 전북 부안군 변산면 대지1677㎡(507)건평 422평 객실 48실 대충6억2천 매도 8억3천
- 임야 무안군 용탄면61890평 평당 2500원 매도 1억6천
- 사찰적합 건물 합평군 월아면 땅 2657㎡(804)건물 2층 57평 은행 2억 산이 있는 주택과 교환가능 5억
- 전남대일 신안동 4거리 상업지 대지 446㎡(135)4층 건물 322평 은행 3억 매도 7억2천
- 북구 우산동 상가와 원룸건물 대지331㎡ 건물 1366㎡(413평)은행 6억2천 보증금 8천선 월900만원 매도9억6천
- 식당 건물 금매 금남로 3가 부근 소방도로 점 대지 149평 건물 438평 은행 6억4천 전세 8천에 월 440선 7억7천
- 북동 상업지 300평 원룸들 다용도 8억

매도·임대

- 쌍춘동에 신축중인 가도생활주택 2차 건물 호텔급 시설의 풀플랜 9평형 주택. 입주는 1월 임대는 전세1000에 월40선. 매매는 6300만원/대충 3천만원 포함/투자자는 여러개를 매입해서 임대하면 수익성이 매우 좋음.

문의 222-4994, 010-2632-5659
쌍춘동 (구) 등기소 자리, 가도 생활주택 전시관

금매매

신안동 신안 사거리 부근 30m 도로변 코너

6층 상업지역 건물

건물 600평 토지 151평

평당 토지 가격 600만원 정도

토지 가격 만도 9억정도

매매가격 9억 4천만원

라멘조 총별 100평 정도

조건은 전세, 월세 안고 구입

010-3215-9969

공장 금매매

하남공단 9번로 인근 (천변 4거리 코너) 토지

3,305㎡ 건물 1,300㎡

- 사무실1,2층
- 높이 : 8m
- 호이스트3톤 2대
- 전기 : 200kw

물류창고 최적

매매가격 18억원

송학동 계획관리지역

잡종지(8,000㎡) 임야(7,000㎡)

매매가격 3억5천만

신진공인중개사

010-2644-4265
011-9602-6225

저렴한 고급별장

정남진 장흥, 특랑만 해변가 환상적인 드라이브코스 해수욕장과 리조트 등 최고의 워케이션과 어울린 절경의 고급별장

토지 4,900㎡ 건물 245㎡

캐나다산 수입목 목조(100%) 건물에 수입창호 등 최고급 자재 및 내부공기 자동 배출 방식의 숨쉬는 집.

전원주택이 아닙니다. 자세한 문은 사무실로 내방바랍니다.

싼 도심속 전원주택지

지산동 2차순환도로 인근 숲속의 전원주택부지 및 시설용지로도 적합.

전 3,700㎡

매가 ㎡당 105,000원

행운공인중개사사무소 (구.대창공인) 011-642-7777

해남 관리지역 (낮은 야산) 금매

문내면 석교리

5300평

평당 3만원

폭6m 현충도로 있음

목포 생활권

해남기업도시 인접

회원면 조산배후 단지 가능

밭, 과수원 주택, 축사 사료공장 태양광등 모두 가능

문의전화(지주) 010-7979-8257